

교 훈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여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계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수운교보

·발행인: 총무원장 강서조
 ·편집인: 부총무원장 양선모
 ·발행처: 수운교본부
 ·발행소: 305-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403
 ·창간일: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전화/팩스: 042-861-1771 · 862-9436/862-1772
 ·인쇄처: 삼성디자인기획 042-221-3111
 ·홈페이지: http://www.suwoongyo.or.kr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

경제위기를 개혁정신으로 극복하자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각종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고 우울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인력을 줄이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기업마다 최소의 비용과 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대란 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은 취업의 길이 막

막혀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석학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

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 자크 아탈리는 위기는 역사상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번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탈리는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만이 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2면에 이어



제34대 이찬구 법사원장 취임

2월 1일 오전 10시,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사원장에 이찬구 사회부장이 취임하였다. 이찬구 신임 법사원장은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제34대 법사원장에 당선되었다.



선서를 하였다. 이 법사원장은 취임인사에서 수운교신앙을 훌륭히 발전시켜야 할 법사로서 포덕과 기도

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법사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장에는 김석주 감리원장, 윤병록 이사장, 김병호 고문, 이영주 전 법사원장 등 60여명의 교역자와 교인들이 참석하였다. 취임식 이후 열린 법사원 간담회에서는 법인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광수 법사의 사퇴로 김명찬 前 이사가 법사에 위촉되었다. ㉞

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법사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장에는 김석주 감리원장, 윤병록 이사장, 김병호 고문, 이영주 전 법사원장 등 60여명의 교역자와 교인들이 참석하였다. 취임식 이후 열린 법사원 간담회에서는 법인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광수 법사의 사퇴로 김명찬 前 이사가 법사에 위촉되었다. ㉞

新年辭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그리고 교단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교역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아침에 금병산 운수봉에 올라 붉게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의 무궁한 발전과 교인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천사님의 가호로 우리의 소망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우리교단은 그리 순탄치 못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교인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교단 운영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안겨드린 점에 대하여 우리 모두 각성합니다. 나아가 새해에는 경전의 말씀에 “나의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신 세 글자라” 하신 것처럼 매사에 성경신을 다함으로써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네탓이오, 내탓이오 갑론을박하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관용으로 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인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의 자세로 수련수도에 전념하여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 실천 속에 나타나는 헌신과 봉사로 남을 위하여 발원하여 서로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 양심을 다스림에 있어서 속이는 일이 없도록 본성을 보존하여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한다면,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는 순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역자 교인 여러분!

지난 해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금년도의 역점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역자와 교인간의 신뢰구축

둘째, 지속적인 포덕교화 활동전개

셋째, 성지·도량의 정비확충 사업추진

이상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교인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끝으로 교인여러분 가정마다 하시는 일과 바램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오며 이만 새해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축년 새해 아침

총무원장 비호자 강서조 합장

17면 '열제위기를 개혁정신으로 극복하자, 나아가 그는 이 위기가 비록 악(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주는 선(善)이라고 말한다. 일찍이 수운천사께서는 당시에 험난한 세상을 당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간신히 한 가닥 길을 얻어서 걸음 걸음 험난한 길을 건너가노라. 산밖에 다시 산을 보고 물밖에 또 물을 만나도다. 다행히 물밖에 물을 건너고 겨우 산밖에 산을 넘어 바

야흐로 넓은 들판에 이르니 비로소 큰 길이 있음을 알았노라”(탄도유심급)

이렇게 험난한 산길 물길이라도 일심으로 참고 걸어 가면 언젠가는 큰 길을 만나 기쁨을 얻는다는 교훈의 말씀이다. 좌절이나 낙담은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한다. 저 산이 비록 높은 태산일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야 하며, 저 물이 비록 깊은 대해일지라도 우리는 건너가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가 간절하

게 기다려온 새 세상은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 하나있다. 지금의 이 위기가말로 우리가 과거를 깊이 돌아보고 개혁의 정신으로 재무장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 넓은 들판의 대도는 바로 개혁의 마음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으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까지 지녀온 허영심과 자만심, 그리고 돈과 지식 제일주의를 버려야 한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는 인륜도덕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자연질서도 무시하며 돈에만 쫓아 나홀로 무한질주를 거듭해온 것이 아닌가? 차라리 이번 고통을 하늘의 지독한 채찍으로 여기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한다면 우리사회와 인류에게는 분명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희망의 빛이 밝아 올 것이다.(炳)㉞

188년 본부 정기총회 개최

8억 7천여만원 예산 통과, 고문 · 이사 총회정석수에 포함하기로

1월 21일(수) 오후1시 본부 법회당에서는 수강 188(2009)년 본부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73명의 총회 정석수 중에 48인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총 8억7천여만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공석중이던 법사원장을 선출하였다.

이날 총회는 먼저 강서조 총무원장의 개회사, 박창희 교무부장이 전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교황을 보고하였으며, 김석주 감리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 김덕환 재무부장이 결산보고를 하였다.

첫 번째 의안인 법사원장 보궐 선거에서는 이찬구 사회부장이 선출되었다. 이어 올해 주요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올 예산은 일반회계 5억9천여만원, 특별회계 2억8천만원 등 모

두 8억7천여만원이다. 이날 총회의 마지막 순서로 기타 토의시간에는 세 가지가 논의되었다. 먼저 총회대의원 확대방안으로 본부 고문과 법인 이사를 총회 정석수에 포함하기로 하였고, 도성암 6필지 전(田)은 처분하여 입야 등으로 대체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기축년에 새 영우총

보를 편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일 오후4시 재단사무국에서는 22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

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전년도 결산서와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였다. 총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오후1시에는 복지관에서 법사회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또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감리원의 정기감사가 있었다.㉞



민족종교협의회 · 겨레일본부 정기총회개최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한양원)와 사)겨레일살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한양원)는 2월5일 오전 11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교단에서는 강서조 총무원장, 박창희 교무부장이 참석하였다.

이 날 총회에서는 작년도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그리고 올해 사업계



획과 예산안을 통과하였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해외순회강연회, 도서출간, 고등학생 백일장 등이 확정되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겨레일 지부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프랑크푸르트기독교대학에 한국민족종교학을 개설하기로 하였다.㉞

겨레일지도자초청 강연회 및 출판기념회 개최



행사장은 회원교단 임원과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온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 교단에서는 김석주 감리원장을 비롯하여 8명의 교역자가 참석하였다.

특히 “겨레일을 빛낸 역사인물 100인”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책은 박성수 교수, 이현희 교수, 노길명 교수, 이서행 교수, 김용환 교수등 5인이 공동집필하였다.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사)겨레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작년 12월 9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20층)에서 “2008 겨레일지도자초청 강연회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강연회는 한양원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관 조계종총무원장과 박재갑 서울대 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㉞



근 하 신 년

수강 188년 기축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교인 교역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바라오며,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불천사님께 축원드립니다.

- 기축년 새 아침
- 총무원장 강 서 조
 - 법사원장 이 찬 구
 - 감리원장 김 석 주 합장

새 / 해 / 인 / 사

謹賀新年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새해를 맞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제34대 법사원장에 선출되어 지면으로 인사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인 여러분마다 신앙이 날로 발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불천사님께 축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법사 동덕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수운교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일심동령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천사님의 도법(道法)을 신앙하는 법사로서 수운교신앙을 훌륭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교단의 중추적인 교역자로서 포덕과 기도 모범적으로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개혁을 목표하는 신앙인으로서 생활현장이나 교단사업에서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천도(天道)를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를 맞아 천사님의 도법을 연구하고, 진리를 받들어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삼대원 성취를 위해 성경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일심동령하면 지상천국은 분명히 앞당겨질 것입니다. 사람이 팍팍한 만큼 신앙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천리(天理)입니다. 우리 모두 '평생 도반'이라는 신념으로 천리 길도 함께 걸어 갑시다. 그 길에 우리 법사가 선두에서 나아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사원장 병호자 이찬구 합장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인 여러분 모두 뜻하신 일마다 성취되시길 두손 모아 축원합니다.

교인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인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본부는 알뜰하게 살림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원장으로서 교단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야 하고, 또 법인의 감사로서

재단의 재정도 살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이런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서는 교인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삼대원 성취가 속속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운교신앙을 열심히 믿는 것 자체가 곧 부모와 조상님의 신앙심을 이어 받아 지켜가는 일이며, 나아가 수운교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 여러분

바람, 비, 서리, 눈이 다 지나간 후에야 한 나무에 꽃이 피어 온 세상에 봄을 이룬다는 천사님 말씀을 꼭 믿읍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일심동령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우리에게겐 반드시 희망의 빛이 찾아 올 것입니다.

거듭 기축년 한해 동안 내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불천사님께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리원장 공호자 김석주 합장



교인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새해 己丑년이 밝았습니다.

교인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천사님께 축원 드립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여러 가지 다짐도 해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신앙인의 다짐은 남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운교의 신앙은 몸과 마음을 다해 천주를 모시는 삶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경전에 의하면 모신다는 것은 내유신령, 외유기화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신다는 것은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하셨으니 새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인 동덕여러분, 해마다 우리 법인의 살림도 그 규모가 커 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운 8억7천만원의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전 임원과 교역자가 일심동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희생적인 봉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3대원 성취에 진력을 다합시다.

다시 한번 교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천사님께 축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이사장 은호자 윤병록 합장

신년축시



한국령 독도

新羅智證命于山(신라지증명우산)

신라 지증왕 우산국이라 명하고

高麗仁宗派遣官(고려인종파견관)

고려 인종 명주도감 이양실을 파견했네

朝鮮高宗稱獨島(조선고종칭독도)

조선황제 독도라 칭하니

大韓領土是明關(대한영토시명관)

대한영토 지경관문 분명하도다

貪心獨島倭奸詐(탐심독도왜간사)

간교한 왜국을 탐내어

三十六年侵奪蠻(삼십륙년침탈만)

36년간 침탈하여 압박한 만행들

傳代本源貪慾動(전대본원탐욕동)

대를 전하여 본래 탐욕 다시 발동하니

流浪海上擊心頑(유랑해상격심완)

해상을 떠돌던 완악한 마음 그대로일세.

고문 원호자 梁元胤

韓國領獨島
新羅智證命于山高麗
仁宗派遣官朝鮮高宗
稱獨島大韓領土是明
關貪心獨島倭奸詐三
十六年侵奪蠻浪海上擊
心頑 己丑年 梁元胤

경 전

동경대전 좌잡에 이르시기를
 吾道博而約하니 不用多言義라
 오도박이약 불용다언의
 別無他道理하고 誠敬信三字 라
 별무타도리 성경신삼자

나의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성경신 세 글자라.

這裏做工夫면 透後方可知라
 저리주공부 투후방가지
 不作塵念起하니 惟恐覺來知라
 불파진념기 유공각래지

이 속에서 공부하여 깨친 뒤에라야 마침내 알게 될 것이니라. 하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잡념이 일어나니 오직 두려워함으로써 깨달음이 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경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본주문 13자인 시 천 주 조 화 정 영 세 불 망 만 사 지를 설명해 놓은 경념총화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敬念總話] 경념총화

제1장

侍字下敬念 誠道章

정성으로 도닦는 말이니라

1 爾知道乎아 有涯人生에 無涯事業이 卽是道也니라 道不在他라 日用行路니 以誠而入하고 以默而守하고 以柔而用하느니 用誠은 似愚하고 用默은 似訥하고 用柔는 似拙이니라

하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도를 알겠느냐? 끝이 있는 인생에 끝이 없는 사업이 곧 이것이 도이니라. 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쓰고 행하는 길이니 정성으로써 들어가고 잠잠함으로써 지키고 부드러이함으로써 쓰나니 정성을

하는데는 어리석은 것 같이 하고 말없이 하는데는 말더듬이 같이 하고 부드럽게 하는데는 웅졸한 것같이 하느니라.

2 夫如是意誠하고 意誠則心誠하고 心誠則氣有正而心有定이니 定則安하고 安則聖智全하고 聖智全則慧光이 生하고 慧光이 生則豁然貫通하여 體天行道에 光明正大矣라라.

대저 이와 같이 뜻을 정성하고 뜻이 정성되면 마음이 정성되고 마음이 정성되면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하리니, 정한 즉 편안하고 편안한 즉 거룩한 지혜가 갖추어지고 거룩한 지혜가 온전한 즉 지혜로운 빛이 나고 지혜의 빛이 난즉 환하게 통해서 도를 깨달아 하늘님을 받받고 도를 행함에 밝은 빛이 바르고 크리라.

제2장

天字下敬念 敬天章

하늘님께 공경하는 말이니라

1 爾知天乎아 天卽吾也니 吾則一也라 惟一無二矣니라 虛亦吾也오 實亦吾也니 探不然而思之則無極而無窮이오 由其然而觀之則 有成而無形이니라

하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하늘을 알겠느냐? 하늘은 곧 내니 내인즉 하나이니라. 오직 하나요, 둘이 없느니라. 허한 것도 또한 내요, 실한 것도 또한 내이니라. 그렇지 않음을 더듬어 생각한 즉 끝도 없고 다함도 없는 것이요, 또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본 즉 이루어지는 것은 있으나 형상은 없느니라.

2 鬼亦吾也오 神亦吾也니라 敬而遠之則不可思議요 〇而近之則不可方物이니라 非高非遠하며 能大能小하며 無內無外하며 不近不卑하여 在汝一心이나 總攝萬機하고 化育萬物하느니 行住坐臥와 語默動靜之間에 一心敬念發願하면 吾則化形十方하며 運心三界하여 咸得如意케하느니 駕

無底船하며 吹無孔笛하여 造化無窮하리라

귀신도 또한 내요, 신령도 또한 내이니라. 공경하여 멀리한 즉 가히 생각하여 의논치 못할 것이요, 친하여 가까이한 즉 가히 물건에 견줄 바 아니니라. 높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능히 크고 능히 작으며, 안도 없고 밖도 없으며, 가깝지도 않고 낫지도 아니하여, 너의 한 마음에 있으나 도무지 만가지 기를 잡고 만물을 화해내어 기르느니 행할 때나 머무를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말하고 잠잠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사이에 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생각하여 원(願)을 일으키면 내가 곧 시방세계에 형상으로 화하여 마음을 삼계(三界)에 옮겨 다 뜻과 같이 얻게 하니 밋없는 배를 타며 구멍 없는 피리를 불어서 조화 무궁하리라.

【주】 천사께서 동경대전 논학문 13장에 주문 13자를 해석하는 가운데, 유독 천(天)에 대해 自解(자해)하지 않으셨는데, 이 경전장은 바로 논학문의 不言之天(불언지천)이 무슨 뜻을 담고 있나를 잘 밝혀 주고 있다. 하늘님은 在汝一心(재여일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不言)으로 볼 수 있다.

제3장

主字下敬念 信仰章

우러러 믿는 말이니라

1 顧左右而指示曰 爾知兩仙乎아 左는 聖德禪師요 右는 順德仙官이니 開闢後五萬년에 吾亦勞而無功故로 代其人間하여 使治人間하느니 曰 儒曰佛曰仙曰基督이 都是吾也라 儒之養性和 佛之見性和 仙之鍊性和 基督救性이 率其本性則一也라

하늘님이 좌우를 돌아보시고 가르켜 말씀하시되 네가 두 신선을 알겠느냐 좌에는 「성덕」(聖德)선사요, 우에는 「순덕」(順德)선관이니 하늘과 땅이 열린 후 오만년에 내 또한 수교롭되 공이 없으므로 인간을 대신하여 그로 하여금 인간을 다스리게 하느니 말씀하시되, 유라 불이라 선이라

기독교라 하는 것이 도무지 이것이 내이니라. 유도에서 천성을 길러 자라게 함과 불도에서 천성을 깨닫게 함과 선도에서 천성을 단련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천성을 구원하며 안락에 이르게 함이 본성을 거느린 것인 즉 하나이니라.

2 挽近以來로 世遠道微하고 經殘教弛하여 各樹門戶하고 各執偏見하여 是非紛 에 和不一軸하니 不 吾勞而已라 實厭穢德이로다.

근래에 이르러서 세상은 도에서 멀어져 어둡고 경전은 쇠잔하여 가르침은 해태하여지고 제각기 문호를 세워 치우친 의견으로 옳고 그르다 어지러히 부르짖음에 한 수레 바퀴가 아니되어 화합하지 못하니 내 수고로울 뿐 아니라 실로 덕을 더럽힘이 싫도다.

3 使此順德으로 運定後天하여 統合百家하여 萬和歸一케하노니 嗟我億萬弟子아 咸受訓戒하라 虎從風而용萬里하고 龍得雲而飛九天하노니 敬受師訓然後에야 能成道德君子니라 松柏之葛은 直聳千尺하고 茅中之木은 未免三尺이니 不順德道하고 悖逆師訓하면 不免下愚니라.

이에 「순덕」으로 하여금 운을 후천에 정하여 백가지 교문을 모두 합쳐서 만가지가 크게 화합하여 하나로 돌아가게 하느니 슬프다! 나의 억억만 제자들이여, 다같이 훈계를 받으라. 범은 바람을 쫓아 만리에 뛰고 용은 구름을 얻어 구천에 날으느니 공경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라야 능히 도덕군자를 이루니라. 소나무와 잣나무의 침은 바로 천척이나 솟아 오르고 띪 가운데 나무는 삼척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도와 덕을 따르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어 거슬리면 어리석음을 면치 못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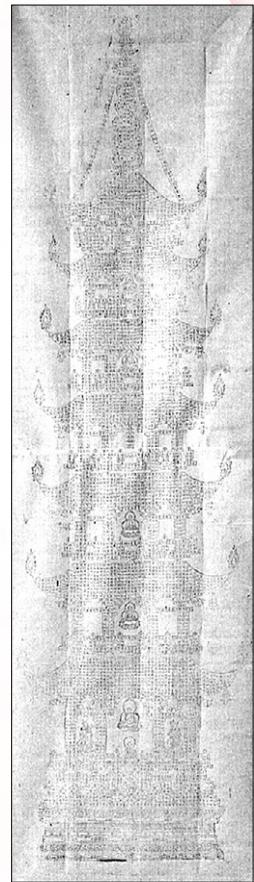
【주】 聖·順(성·순)이란 聖은 聖德君(성덕군) 나옹 佛師(불사)님이시요, 順은 順德君(순덕군) 수운天師(천사)님이시니, 곧 수운교에서 숭배하는 兩位聖師(양위성사)이시다.

금강경 표준 번역본 출간

「비단 위에 또 꽃을 뿌리는 마음」

우리 교단에는 중요한 보물이 하나 있다. 바로 <금강경 탐다리니판>이다. 본래 이 금강경 탐다리의 원판은 천사님 재세시인 수강109년(1930)에 제작되었으나, 1939년 봉령각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1999년에 본부 부녀회의 회시금으로 복원한 것이 현재의 <금강경 탐다리니판>이다. 수운교 탐다리니판의 특징은 순한글로 조각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불교의 대표경전인 <금강경>이 조계종에 의해 표준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이는 종단을 초월하여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육조 혜능 대사가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구절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최초의 금강경탐다리니

비롯해 무수한 선지식에 불조의 해명을 전했던 경전이다. 금강경은 402년 구마라집에 의해 처음 한역된 후 300여 년간 6종의 한역본이 나왔다. 한글로는 1924년 용성 스님의 <상역과해금강경> 이후 현재 100여 종이 넘는 한글 <금강경>들이 유통 중이다.

단 신

“구마라집본을 저본으로 택한 것이 옳은가?”
“운문화 작업보다 번역 기본지침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
작년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 편찬을 위한 공청회에는 편찬 회향을 앞둔 마지막 공청회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많

시를 마치고 편찬·회향했다. 조계종은 1월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조계종 표준 한문·한글본 <금강경>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비단 위에 또 꽃을 뿌리는 마음이 로다”라는 제하의 법어를 한 법전 중정은 “중언부언의 수많은 이본(異本)이 역(異譯)이 때로는 눈에 들어간 금가루가 되었고 평범한 일반대중들에게는 도리어 현애상(懸崖想,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고 생각함)을 일으키게 했다”며 “한글본·한문본 <금강경>의 조계종 표준본을 지남으로 삼아 정진하리다”고 말했다.

지관 총무원장은 “조계종 표준 <금강경>은 지금까지 발간된 <금강경> 가운데 가장 완벽한 주석본”이라고 말했다. 또 청화 스님은 간행사에서 “말과 글이 같아야 생각이 통하며, 생각이 통해야 종지가 드러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표준 <금강경> 발간에는 연관 스님(前 화엄학림 학장)과 각목 스님(화엄학림 강사), 무애 스님(송광사 강사)과 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 김호성 교수(동국대), 김호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표준 금강경(원제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의 편찬위원회가 2년 여간 학술연찬회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것으로 한문본의 경우 고려대장경 판본을 저본으로 하되 고려대장경의 8곳은 다른 6종류의 한문본을 참고해 새로 펴냈다.

예컨대, 표준본은 고려대장경(9분)에는 ‘명위불래 이실무래(名爲不來 而實無來)’라고 한 대목에 불(不)자를 추가해 ‘而實無不來’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10분의 ‘어법유소득불 세존(於法有所得不 世尊)’에 不也를 추가해 ‘어법유소득불 불야세존’ (於法有所得不 不也世尊;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

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공청회에는 청화 스님(교육원장)을 비롯해 현종 스님(불학연구소장)과 연관 스님, 각목 스님 등 금강경편찬실무위원, 강원 강사, 불교학자, 국문학자, 시조 시인, 재가불자, 언론계 인사, 청년회 학생 등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청화 스님은 “<금강경> 편찬사업 마무리로 대중적 공의를 얻고자



금강경 원문	도올 김용옥 번역	표준 번역
善男子 善女人 發 阿耨多羅三藐 三菩提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2분)	선남자 선여인이 아늑다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냈으며, 마땅히 이와같이 살 것이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합니까?
若菩薩 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卽非菩薩(3분)	만약 보살이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 非相 卽見如來(5분)	무릇 있는 바의 형상이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
應無所住 而生其心(10분)	반드시 머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所言 一切法者 卽非一切法 是故 名一切法 (17분)	내가 말한 바 일체의 법이라 하는 것도 곧 일체의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 行邪道 不能見如來(26분)	형체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지 말라. 이는 邪道를 행함이니 결단코 여래를 보지 못하리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실패된 길 걸을 뿐 여래 볼수 없스리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 亦如電 應作如是觀(32분)	모든 지은 법이여!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네. 이슬과 같고 또 번개와 같아라. 그대들이여 이같이 볼지니.	일체 모든 유위법은 꿈·허깨비·물거품·그림자·이슬·번개같은 이렇듯 관찰할지라.

이시여)으로 고쳤다. 또 한 가지 이 표준번역본은 다른 판본에 없고, 고려대장경에만 있는 금강경 진언(33자)을 말미에 수록하고 있다.

“나모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미다예 움 이리지 이실리 수로타 비사야 비사야 사바하”

또 표준 한글본은 100여 가지의 한글 번역본을 두루 섭렵하였다고 한다. 일반에도 널리 알려진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應無所住而生其心)는 대목을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로 풀이했다.

특히 유명한 我相(아상), 人相(인상), 衆生相(중생상), 壽者相(수자상)의 ‘사

상(四相) 개념에 대해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 풀이했다. 불학연구소의 현종 스님은 “정확하고 알기 쉽고, 독송하기 쉽게 하지는 원칙을 세우고 편찬했다”면서 “한문 뿐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은 것인 만큼 통일의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편찬 작업을 참여한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이번 표준본 발간으로 금강경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논박이 활발해지기 바란다”면서 “공동 번역 작업을 통해 금강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炳)

마련한 자리다. 물처럼 읽으면 스며들 수 있도록 번역에 힘썼다”고 말했다. 편찬 실무를 맡은 연관 스님도 “대중을 위해서는 평이하게, 부처님 원음을 위해서는 직역을 택했다. 구마라집본과 같은 의역은 선지식들이 할 일”이라고 강연했다. 전재성 박사(한국 빼알리성전협회)는 “2차본인 한문본을, 그 중에서도 구마라집본을 소의경전으로 삼은 것이 한계다.

법본과 한문을 부분마다 달리 의존해 통일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용어 통일의 필요성은 전재성 박사 뿐 아니라 김영두 교수(원광대) 등 다수의 참가자가 지적했다. 특히 전영화 본부장(복지TV 편성본부)은 “껍이 떨어지면 깨진 달걀을 액체를 담은 용기가 추락하면 파괴된다’는 식의 번역은 그만해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붓다뉴스팀**

본부·지부동정

3.1절 유시극종 영가봉안



오는 3월1일 (일) 오전 10시에는 본부 법회당에서 3.1절 독립운동 희생영령 위령제를 맞아 유시극종 영가를 향사록에 등재하고 위패를 봉안한다. 또 일반위패도 함께 봉안한다. 현재까지 총 3063위(位)가 향사록에 등재 봉안되었다. 현재 총무원은 작년도에 환원한 영가에 대한 향사록 등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인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덕호 장학금(200만원)과 일반장학금 (5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총무원 지부 순회



총무원은 작년 11월 21일 육지 지부 도성암(선교사 연구일), 대전지부(지부장 류효석), 청라지부(지부장 김구한), 보령지부(지부장 편순희)를 차례로 순회하였다. 순회는 강서조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양선모 부원장, 이찬구 서무부장이 순회사로 참여하여 지부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점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1월6일부터 이틀간 제주 수산지부와 구업지부를 순회하였다. 순회에는 강총무원장, 김석주 감리원장, 윤병록 이사장이 참여하였다.

총무원 교역자 양성 교육 종료



작년 7월 7일부터 실시된 교역자 양성교육이 12월 27일 수료식을 끝으로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쳤다. 강서조 총무원장은 이날 수료식에서 교육생 여호 강모세와 지호 김현철 2인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교육생들은 본부에서 5개월, 안덕지부에서 1개월 파견교육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민호자 최재봉은 1개월간 교육을 마쳐 의전교육 수료증을 받았다. 총무원은 올해 교역자 양성교육에 뜻을 둔 예비교역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인사무국 신전지부 건물과 토지 교환

작년 12월 31일 법인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전지부(지부장 서진림) 제주시 이도2동 41-3번지 건물(93.5㎡)과 토지(230㎡)를 교환 등기하였다. 그동안 관리사로 사용해온 법인 소유 건물이 노후하여 서진림지부장 개인소유 동일 번지내 임야 230㎡와 교환한 것이다.

봉령각 계곡 추목동 시방댐 완공



작년 9월말에 착공했던 봉령각 좌측 계곡 추목동 398-1번지 내 길이 24m, 높이 3m, 저수량 740톤의 “추목동 시방

댐”공사가 12월14일 완공되었다. 이 댐은 사업면적 1075㎡로 유성구정, 산림조합에서 다목적용 시방댐으로 공사한 것이다. 비상시에는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소방수로 사용되며, 한 여름에는 교인과 주민들에게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신성동 동사무소 본부에 음수대 공사



본부 사무실 입구 약수터에 새로운 음수대를 설치하였다. 이번 음수대 공사는 우리 교 관할 신성동 주민센터에서 일부 지원받아 우리신도의 성금으로 조성하였다. 이 음수대 물은 천단 청정수로 내려오는 물을 연결하여 나오는 자연수이다.

본부 신도회 회장에 박남형 법사 선출



1월1일 새벽 7시, 본부 신도회(회장 양선모)는 새해 해맞이 행사를 금병산 운수봉에서 가졌다.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교인들이 참석하였다.

또 신도회는 1월11일 오후1시 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박남형 법사를 본부 신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부회장에는 김옥현 교회부장, 김입분 前부녀회장이 각각 선출되었고, 감사에 김광석 법사, 재무에 지재현 씨가 임명되었다. 박회장은 취임인사에서 교인회합과 도량 정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덕호 장학금 추가기탁

작년에 일도지부 덕호자 황관역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황덕호 장학금에 최근 2,350만원이 추가 기탁되어 현재 잔액은 5,350만원이 되었다.

단 신

* 1월26일 음력 설날을 맞아 본부 복지관에서는 총무원장을 비롯한 참배 교인들간에 새해 세배를 하였다. 교인 자녀들까지 함께 찾아와 모처럼 도량은 화기애애 하였다.

* 강서조 총무원장은 2월2일 오전11시, 새로 부임한 안창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면담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 본부 법회당은 올해 법일예식과 각종 수련기도시 그동안 공부해 온 천황주 대신에 팔통주로 바꾸어 주력공부하기로 하였다.

* 본부부녀회(회장 정이순)는 2월6일 오후1시 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대전 시내버스 노선이 작년 12월30일부로 전면개편되었다. 우리 교단에는 107번 버스가 수운교 입구까지 들어온다. 지하철 환승시 유성온천역 7번 출구에서 107번 버스를 타면 본부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작년 12월 1일 전기안전공사는 3단 전기 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찬구 법사원장은 최근 이순신연구논총(제10호)에 “총무공 이순신의 진중 예사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 작년말 본부 박종웅 교인과 봉개지부 임선아 교인이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하였다.

* 1월 15일 총무원에서는 유성구정(100만원), 신성동 자치센터(50만원)를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였다.

188(2009)년 주요사업계획

1. 구식당 수리

- 용도 및 면적 : 주택 98.7㎡(30평)
- 사업개요 : 구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전용숙소로 개보수 한 후 사용
- 사업효과 : 장실 내 부인실 등을 철거하여 환경정화에 필수적임
- 사업금액 : 약 4,000만원 소요

2. 법회당 수리

- 용도 및 면적 : 법회당 238.02㎡(72.12평)
- 사업개요 : ①지붕을 전동기와형 함석으로 교체 ②방안위패 3,000위를 축소제작(홍가량)
- 사업금액 : 약 2,000만원 소요

3. 환경개선 사업

- 구조 : 돌 등 토담기와 울담 길이 약 300m
- 사업개요 : 법회당 장실 주변 담장이 낡고 미관이 좋지 않아 철거후 정화 작업
- 사업금액 : 약 3,000만원 소요

4. 구회의실 보수 정비

- 용도 및 면적 : 110.86㎡(33.6평)
- 사업개요 : 전동기와형 함석 지붕개량·내부를 리모델링
- 사업금액 : 약 1,500만원 소요

5. 법회당 앞 화장실, 사무실 옆 화장실 보수

- 사업개요 : 지붕 전동기와형 함석, 내부 전면 수리
- 사업금액 : 약 1,500만원 소요

6. 청정수 개량 사업

- 사업개요 : 도출천 원천샘 정화작업, 중간 걸름 장치 마련
- 사업금액 : 약 1,000만원 소요

금년도 사업계획이 총회의 승인으로 확정되어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교인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간곡히 바랍니다.

영우총보 편집안내

영우총보는 수강 113년(1934, 갑술) 9월 천사님의 지시에 따라 성관실행한 교인에 한하여 5대 조상부모와 처자까지 수단하여 편성한 보서입니다. 이것을 갑술보라 합니다. 그 뒤에 기해보(1959년), 임인보(1962년), 무오보(1978년), 신사보(2001년)를 편제하여 천단에 봉안하였습니다. (사본 사무실 비치함) 이와같이 5차례 하였으나 단 1회에 한하여 편제함으로써 누락자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갑술보 113년(1934 갑술) 현재 76세 되신분은 보서에 있으나 그 밑에 손은 기록이 무함으로 조상부모님을 승계하여 현재 봉도인 중심으로 새총보를 할 예정입니다. 총보작성에 필요한 수단은 인쇄하여 각 지부, 선교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최고령 '고갑생' 교인 105세에 환원



▶ 남편 박만년씨의 팔순에 함께 찍은 사진, 고갑생부인은 당시 83세였다.

제주 조천지부 최고령 교인인 학선군부인 고갑생(高甲生)부인이 지난 해 12월 15일 환원하였다. 향년 105세, 고갑생 부인은 갑진년(1904) 3월24일 생이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27번지에서 운명하였다. 조천지부를 창설한 김두옥 전 총무원장과는 사돈간이다. 고갑생 부인은 마을 훈장을 지낸 남편 七虎 박만년(정

미생)씨 사이에 4남 4녀를 두었다. 본부 부녀회장을 역임한 박봉렬 부인이 바로 막내 딸이다. 고갑생 부인은 생존시에 목청이 좋아 '관세음보살' 염불을 잘 하였다고 하며, 운명할 때까지 말하기, 기억력, 청력이 좋았다고 전한다. 아들인 박원림씨에 의하면 평소 불천묘경을 잘 보았고, 음식은 소식(小食)을 하였으며, 채

식을 주로 하였고, 조상 제사를 잘 받들었다고 했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쌀 풀인 죽물을 세 번 떠 넣으면 내가 죽어도 자손이 잘 산다"고 말해, 딸 춘생씨가 죽물을 떠 넣어주자 곧 바로 운명했다고 한다. 부인은 7년전에 도성암에 불기를 희사한 바 있다. ☉

己丑年 '해맞이 행사' 를 다녀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2008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의 2009년을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를 본부 신도회 주최로 갖는다고 하여 필자도 처음으로 참석해 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주히 준비하고 6시까지 본부복지관에 도착하였다.

낮익은 교인들 그리고 모처럼 도량에 나온 교인들이 벌써부터 나와 산행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산을 좋아하는 비(非)교인들도 있었다. 해마다 해맞이 행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행사에 동참해 본 것이다. 연말의 바쁜 일정 중에

도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신도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참석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6시5분 복지관을 출발하여 정성인 운수봉을 향하여 푼푼한 산길을 걸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등산장비를 잘 갖춘 사람도 영하 10도를 넘는 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듯 했다.

묵묵히 앞서사람의 발꿈치를 바라보며 산길을 올라 운수봉에 오르니 6시 40분이었다. 준비해간 공양물을 정성스레 차려놓았다. 모두 소원을 비는 경정위사들의 축원을 들으면서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밝아오는 새해의 계획도 생각하였을 것이다. 필자도 산에 오르면서 생각한 몇 가지 소원을 빌었다.

축원이 끝나고 공양물들을 나누어 먹었다. 꿀맛 같은 음복이었다. 그러던 중에 7시 43분 己丑年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둥근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해가 완전히 제 모습을 드러낸 2분여 동안은 장엄하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여기저기서 탄성소리가 들렸다. 매일 보는 해이건만 오늘 따라 그 느낌이 달랐다. 양선모 신도회장의 삼대원 성취가 제창과 만세삼창을 끝으로 己丑年 "해맞이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정상에 오르면 다시 내려와야 하듯이 모두 산을 내려왔다. 다시 복지관에 돌아오니 부녀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분들이 맛있게 끓여놓은 떡국(만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운교 특유의 떡만두국이었다. 떡국을 먹은 참석자들 모두가 즐겁고 희망찬 새해를 잘 설계한 듯 기쁨과 가슴 뿌듯한 얼굴로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몇몇 교인들이 회의실에 모여 이번 해맞이 행사에 참석한 비(非)교인들을 수운교인으로 입교시킬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해맞이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좋은 의견들을 모아 다음 행사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내년 해맞이 행사가 기다려진다.

己丑年 새해아침

三虎字 李榮周

"우리모두 화합합시다"



존경하는 교인여러분,

수운 188년 입춘지절에 교인님 가정에 천사님의 은혜와 가호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1월 본부신도회 정기총회에서 신도회장으로 선출된 박남형입니다. 부족한 제가 신도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인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충고도 겸허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운교는 민족종교 10여개 교단 중에서도 손꼽히는 교단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비해 우리 교단의 발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매일 수록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인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원, 법사원, 감리원의 삼원이 화합하고, 여기에 우리 전체 교인 동덕여러분이 화합한다면 우리 수운교는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부가 있는 대전은 올가을에 전국체전이 열리는가 하면 국제우주대회가 열립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우리 교단을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솔천을 비롯하여 3단 도량을 향시 청결히 하여 손님을 기쁘게 맞이 합시다. 이런 일에 우리 신도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끝으로 교인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소망 꼭 이루시길 천사님께 기원드립니다.

본부 신도회장 대호자 박남형 합장

근하신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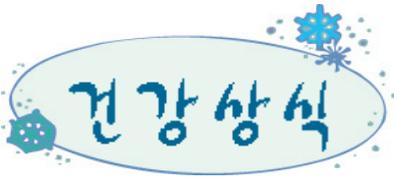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교인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만사행통하시고 온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불천사님께 축원드립니다.

기축년 새아침
별인 이사장 윤병록 합장

자운대 한의원

원장 정봉연

☎ 042) 863-1075, 867-1075



건강상식

숨쉬기를 조절하는 비결

양성서에는 “사람의 몸을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없고 단지 돌아다니는 氣(기)가 있을 뿐이다. 숨 쉬는 기가 잘 조절되면 온갖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우선 숨 쉬는 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숨 쉬는 것을 조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밤12시부터 낮 12시까지의 기가 생기는 때이므로

조절할 수 있지만, 낮12시부터 밤12 시까지는 기가 죽는 때이므로 조절하지 못한다.

먼저 코로 공기를 들이켜 배에 들어가게 한다. 마음껏 들이켰으면 멈춘다. 더 들이시킬 힘이 있으면 더 들이킨다. 오랫동안 참다가 숨이 답답해지면 입으로 천천히 모두 내보내고 다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을 전과 같이 반복하면서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셈을 센다. 그리고 귀에 들리지 않게 하여 1000까지 셈을 세게 하면 멀지 않아 신선이 된다. 만약 날씨가 음침하고 비바람이 있어서 몹시 차거나 더우면 공기를 마시지 말고 단지 숨만 참는다”

(정기백 | 영창당한약방)
(042) 823-5804

계·사·판

상반기 법회안내

◎ 삭망치성기도 (동) 매월 초 1일, 15일	오전 7시	3 단
◎ 백일기도치성 (동) 매월 27일	오후 3시	법회당
◎ 위령제일 (양) 3월 1일	오전 10시	법회당
◎ 신장재일 (동) 2월 7일	오후 3시	광덕문(남문)
◎ 본부응황기도 (동) 3월 3일		본부부녀회
◎ 조왕재일 (동) 3월 29일	오후 3시	장실
◎ 응황재일 (동) 4월 3일	오후 3시	장실
◎ 산왕재일 (동) 4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 교주탄강 (동) 4월 15일	오전 10시	천단
◎ 위령제일 (동) 4월 16일	오전 10시	법회당
◎ 인등백일제 (동) 4월 23일	오전 10시	봉령각

(문의 ☎ (042) 861-1771)

특성금품쾌척

◆ 특별희사

- 650,000 : 최장식·임수원, 나예주, 손성운
- 500,000 : 박창희 (천단청정수 원수통 제작)
- 200,000 : 임재혁, 김재형
- 150,000 : 손영돈, 한용성, 심필임
- 본부 신도회 세척기 회사 (300만원)

◆ 물품희사

- 60만원 상당 : 류효석(대전지부장), 김태운(부여지부장), 이장성
- 주부식품 회사 : 김성출(화순), 양설자, 이태정, 고은지(안덕), 고숙자, 오문철(성산), 김수자(상호)

(감사합니다)

* 포덕성금 (188. 2. 13. 현재) 62,879,501원 입니다.

* 장학성금 (188. 2. 13. 현재) 2,211,797원 입니다.

장학회원 모집 안내

1. 회원자격 : 회원은 교인이나 일반인 누구든지 통장계좌에 장학금을 입금시키는 자로 한다.
2. 기금조성 : 장학기금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1구좌에 매월 1만원으로 하되 2구좌 이상도 할 수 있다.
3. 입금방법 : 자동이체로 입금시킬 통장 예금주는 '수운교장학회'이며 계좌는 농협(453116-51-073795)로 한다. (자동이체를 희망하시는 분은 김석기 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자 명 석 고

-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공석이었던 법사원장의 취임으로 삼원이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오직 일심동령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 미국에서 터져 나온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개혁의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새 희망을 꿈꾸어 봅시다.
- 금강경의 명구절인 應無所住 而生其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머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라 중승니까? 아니면,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가 중승니까? 모든 인간 불행의 시초는 바로 ‘집착하는 마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수운교 최고령 교인인 고감생 부인이 105세로 환원하였습니다. 105는 동학에서 사용하는 염주 알의 숫자입니다. 우리 모두 105염주의 원력으로 105수를 누리는 지상선경을 앞당깁시다.

(次兩)

사후세계를 적은 책 인기모아

생전에 사후 세계를 여러 차례 접했다면서 자신이 본 모습을 수십 권의 저서로 남긴 스웨덴의 영성가 이마누엘 스베덴보리의 체험기를 요약한 단행본이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스베덴보리는 1688년 태어나 물리학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57세 때 영국 여행 도중 런던에서 ‘강력한 빛’에 찰 후 영계(靈界)를 다닐 수 있게 된다. 그는 84세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수시로 사후 세계를 드나들었고 그 경험을 수만 쪽 분량의 책으로 남겼다.

책은 스베덴보리가 죽은 자들의 영혼과 만났고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다음 그가 본 사후 세계는 천국과 중간 영계, 지옥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돼 있고, 천국과 지옥은 각각 3등급으로 구분된다고 전한다. 또 천국과 지옥에 머무는 영혼들은 각각 지상의 산 자들에게 접근해 서로 이끌려 오도록 경쟁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산 자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게 돼 있다고 전한다.

스베덴보리는 ‘안내 천사’의 보호를 받아 지옥을 탐방해 악령의 흉악한 모습과 풍경을 전한다. 천국은 빛과 따뜻함으로 가득하고 영인(靈人)은 20대 젊은이들의 모습이며 그곳에서는 시공을 초월해 모든 게 생각하는 대로 이뤄진다. 스베덴보리는 천국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그의 저서 ‘천국과 지옥’에서 “그저 마음 속에 하늘을 품고(혹은 양심을 지키고) 사심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베풀면 되는 것”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밝힌다.

(다산북스 펴냄. 스베덴보리연구회 편역)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불 광 주 박 상 범 환원 (子 광희)
- 학선군부인 진 호 숙 환원 (子 김학준)
- 순 녀 이 길 순 환원 (子 손정훈)
- 학선군부인 김 행 녀 환원 (子 김철수)

자택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분은 연락바랍니다.

◆◆ 총 무 원 ☎ 042-861-1771 ◆◆

공덕미를 납부합니다.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 교인은 소속 지부에 납부바람